

# 유기농 가공품 수입의 과제

김혜경

(주)내추럴홀푸드 대표이사

---

- I. 머리말
- II. 다른 나라의 유기가공식품 현황
- III. 유기가공품 수입을 통한 상호교류
- IV. 수입을 통한 오가닉 트렌드  
(Organic Trend)의 활용가능성

## I. 머리말

국내 유기(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전체농산물시장규모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 17%에 이를 것으로 짐작한다. 관련사업분야의 매출액을 합하면 2002년 올 한 해 3천6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시장을 나눠보면 1차 농산물이 약 1천5백억원, 나머지는 가공품 등 기타 시장이 차지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2000년도에 가장 많은 유기농산물을 판매한 나라는 미국으로, 1999년~2002년 사이 연평균 30% 가까운 성장세이다. 미국의 유기농산물 판매는 가공식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료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화한 유기가공품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 있다.

## II. 다른 나라의 유기가공식품 현황

국내에서도 유기농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와 식품업계에서는 1차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기농 원료 가공품에까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유기농식품의 소비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는 상품구색의 한계성이다. 기후나 농경지 면적 등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유기농 식품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스레 해외 유기농 제품이 들어와 그 자리를 넓혀 가리라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나 농지면적에서 다양한 유기농 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유기농원료 가공품 쪽으로 집중한 결과, 유기인증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자국에서 개발한 유기농 가공식품이 더 발달해 있다. 이 같은 가공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해서 유기농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 III. 유기가공품 수입을 통한 상호교류

유기농 가공품의 수입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생산한 식품을 들여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품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도 스며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같은 점은 국제화시대에 그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유기가공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체에 수입국과의 관계맺음에 따라 우리 상품을 소개해서 수출창구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말은 곧, 유기농가공품의 수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계 어느 곳이나 유기농 생산자나 관계자들을 살펴보면 그들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상호교류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희망적이다.

#### IV. 수입을 통한 오가닉 트렌드(Organic Trend)의 활용가능성

서구사회에서는 유기농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식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을 organic style로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단지 식품에서 벗어나 의생활? 주생활 등 삶의 전반에 유기농이 중심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유기농 제품의 다양화에 있어서도 그 성장속도가 현저하다.

지금은 수입창구가 제대로 열려 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때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리 만의 것을 준비해 두어야 할 때이다. 어차피 국내여건상 유기농 원료가공품 개발이 외국에 비해 뒤질 수 밖에 없다면, 보다 범위를 넓혀 오가닉라이프를 지향하는 품목을 우리 전통적인 것에서 찾는 대안이 필요하다.

#### V. 유기농가공식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오가닉 스타일은 앞으로 보다 넓은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발전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유럽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은 이제 준비단계를 살짝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이 오가닉에 대한 브랜드인지도를 재고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유기농산물이 브랜드를 갖추지 못했고, 많은 상품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브랜드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유기농 시장의 성장세로 보아, 특히 유기가공품시장에서는 브랜드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 상품을 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보다는 보다 안전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